

삼손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이다.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구별하셨고, 어떻게 축복하셨으며, 어떻게 대적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생각했다. 이런 축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도 드러내시고,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을 살리셨다. 하나님은 이 시대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구별하셨고, 축복하기를 원하시고, 승리하도록 도우신다.

**안타깝게도 이렇게 쓰임받은 삼손이 실패를 하고, 처절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.**

들릴라라는 여자에 속아서 완전히 무너졌다. 이것은 삼손만의 수치가 아니다.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것이다.

**여기서 질문을 해야 한다.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, 쓸모가 없어졌으니 하나님도 그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가?**

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적들에게까지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.

28절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다.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을 얻어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블레셋의 귀족들과 백성들을 죽였다고 했다(32절).

그러면서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을 받은 해가 20년이였다고 기록하면서 삼손의 역사가 마무리 된다(33절)

**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?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?**

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말세의 우리를 향한 경고이고, “누구든지 선 줄로 생각하거나 넘어질까를 주의하라”(고전10:11)고 했다. 어떻게 사단에게 당할지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고 했다(벧전5:8)

더 깊은 의미가 있다.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주어 자기 백성으로 세운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

1.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신 것이다.

1) **하나님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주인임을 보이신 것이다.**

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과 흔적을 담아놓으셨다고 했다(롬1:20).

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했고,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다.

① **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인생을 창조하셨다(창1:26).**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다.

② **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인생 속에 심어주셨다(창1:27).**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주셨다.

육신은 흠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의 영혼 속에 그의 영을 부으셨다. 이것을 “생명”이라고 했다(창2:7)

③ **그리고 축복하셨다. “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, 정복하고, 다스리라”는 축복이었다(창1:28)**

**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조된 존재들이다.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게 된 사건이 터진 것이다(창3장)**

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인생은 내가 어디서 와서, 어디로 가며,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다.

하나님의 마음, 성품, 형상은 다 잃어버렸다.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타락하고, 온 땅에는 어둠이 가득한 것이다.

인생이 축복이 아니고, 고통과 저주와 지옥이 되었다. **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.**

2) **그 그리스도 속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담긴 약속이 있다.**

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약속하셨다(창3:15).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뜻이다.

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해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(창3:21), 대속의 약속을 주셨다(히9:12)

① **이 속에 인생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. 그 속에 본문의 삼손도 있고, 우리도 있다.**

이것을 구약에 계속 등장하는 “헤세드”의 사랑, “약속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”이라는 뜻이다.

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“영원한 인자하심”이라고 번역을 했다. 그것으로는 다 해석이 안 되는 단어이다(시136).

② **첫 이스라엘(유대인)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일까지 앞장 섰는 데,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다.**

그들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다(롬9:4). 그래서 마지막 “땅끝”을 이스라엘로 보기도 한다.

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끄시고,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신 이유가 이것이다(빌1:6, 롬8:31-39)

이것을 신학적으로는 “성도의 견인”이라고 한다(종교 개혁을 완성한 칼빈이 외친 구원의 결론이다)

2.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?

1) **우리 안에 이 구원의 언약을 심어주시는 것이다.**

그 언약을 전달해주는 것이 전도이다(롬10:14-15). 전도는 누구 하나를 교회로 데려오는 차원이 아니다.

인생의 답이 없어 방황하고, 무너지고, 운명, 지옥 저주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다

2) **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.**

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, 모든 축복과 기쁨의 보증이 되셨다(엡1:13-14)

이전에는 하나님도 없고, 약속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(엡2:19)

성령은 계속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, 기억나게 하시고, 적용하게 하신다(요14:26)

3) **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(사62:6-7)**

① **그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, 도우시며,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“절대 망대”라고 하는 것이다.**

② **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,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(요10:29)**

③ **시편 23편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다윗의 고백 중에 결론이요 크라이막스가 이것이다.**

때로는 억울한 일을 통해, 때로는 자신의 허물과 실패로 인해 처절히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고, 증거이다.

**“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(“헤세드”)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”(6절)**

여기 “따른다”는 뜻은 더 중요하다.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“추격해오신다”는 뜻이다.

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추격해오나 더 크신 언약의 하나님이 추격해오시기에 승리하는 것이다.

3.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? 어떤 환경, 현실, 아픔, 실패의 시간에도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다.

1) **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라.**

**우리가 예배를 드리고,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이것이다. 내 인생의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한다.**

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언약이 내 안에 각인이 되고, 뿌리를 내리고, 체질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.

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대로 이루신다. 강단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을 때에 역사한다(살전2:13)

2) **삼손처럼 실패하고, 고통의 시간을 겪는가?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실패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고통이다.**

그때 회개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,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(요일1:9, 히8:12)

만일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보상하는 길을 찾으라(마5:23-24, 마5:25, 눅19:8)

3) **회개는 잘못을 깨우치고 중단한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.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라.**

삼손처럼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의 마지막 꿈을 꾸라(28절)

**결론-**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세우시고, 쓰시는 하나님이시다. 우리의 평생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한다.